

강천산 가는 길 편리하고 빨라진다

국지도 55호선 확포장사업 확정
순창 백산리~구림 월정리 9km
기존 2차로에서 4차로 확포장



행락철 상습 정체구간인 강천산 진입도로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순창군 제공>

순창 강천산 가는 길이 더 빨라진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됨과 동시에 지역 대표 관광지 강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순창군은 최근 개최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이 일괄예타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순창을 백산리~구림면 월정리 9km 구간,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903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구간은 가을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행락객들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는 곳이다.

특히, 단풍으로 유명한 강천산 진입 구간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생활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그야말로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올 연초에는 지역 이장단이 모여 4차로 확포

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열었다.

그동안 순창군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기존 팔덕저수지를 매워 주차장을 조성했다. 또 곳곳에 간이 주차장을 추가해 만드는 등 자체 대책을 강구했지만 전국에서 모여든 행락객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예타 통과사업에 국지도 55호선이 포함되면서 강천산 진입도로가 넓어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면서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임기 말까지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하루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 '성황대신 사적현판' 국가 보물 승격 추진

민속문화재 조선시대 목판

순창에서 성황신을 섬기던 기록을 적은 조선시대 목판 '성황대신 사적현판' (민속문화재 제238호) <사진>의 국가 보물 승격이 추진된다.

순창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역사학 및 민속학 전문가, 지역 문화자원 활용 추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대신 사적현판 번역·고증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을 담당한 전남대 이형성 교수는 "성황대신 사적현판은 고려 말기부터 순창에서 거행된 단오 성황제와 성황신앙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료"라며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황제 기록 현판으로 한자와 이두로 1676개가 음각돼 그 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 성황대신 사적현판은 가로 180cm, 세로 54cm로 1743년 제작됐으며 성황제 연혁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남섭 부군수는 "현판은 고려 때부터 700년 넘게 풍년과 주민 단합을 기원하며 거행한 단오성황제 모습을 생생한 기록으로 증명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순창단오성황제 복원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현판 번역 고증 자료, 용역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오성황제 재현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판 글씨가 희미하거나 훼손된 만큼 3D 레이저 스캐너로 세밀하게 찍어 디지털 자료로 보관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3D 레이저 탁본으로 현판 내용을 정확히 번역 분석하고 가치를 재확인해 보물 승격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현판의 보물 신청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11월 개최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익산시 공공갈등 효율적 관리 교육

익산시가 공공갈등 해법 마련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익산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소속 전형준 교수가 갈등

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 기획·입안단계부터 갈등을 최소화해 이에 따른 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행정)의 민주화, 시민들의 기대, 공직사회의 민감성 관계에

따라 갈등 정도에 대해 고찰했다.

또 정책문제 해결 방향과 민간·행정 간 갈등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해결 능력 향상 방안을 공유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공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익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자연 속 작은 결혼식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

내장산국립공원 참가자 모집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 속 작은 결혼식'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자연 속 작은 결혼식' 참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은 단풍이 물들어 가는 10월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자에게는 예식장소 및 무대 연출, 예복, 메이크업, 사진·동영상 촬영과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숙박(1일)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대상자는 경제적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부부 등이 우선선정 대상이지만 일반 신혼부부의 신청도 가능하다.

예식은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하객 인원수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을 지향하며 내장산골프장&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일개발 그룹에서는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이 매년 내장산에서 펼쳐지는 문화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장산국립공원과 함께 결혼식 경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지난 22일 대일개발그룹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280㎡ 규모 스마트 온실 교육장 구축

군산시가 미래 스마트농업을 체험하고 배우는 '스마트 온실 교육장'을 이달 말까지 구축한다.

교육장은 2억여원을 들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280㎡ 규모로 건립중이다. <사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환경 제어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작물을 연중 재배할 수 있다. 시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부터 스마트농업을 하려는 농민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진행할 계획

이다.

또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를 육성해 현장 컨설팅을 해주고 지역의 스마트 온실 농장에 대해 원격 지원 서비스도 해줄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스마트 온실 운용기술을 쉽게 가르쳐줘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군, 11개 분야 '2040 미래전략계획' 수립

고창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040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 25일 미래전략계획과 관련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11개 분야의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정으로 살아 어우러지는 고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인구, 경제, 산업 기술, 문화, 관광, 평생 교육 등 분야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 지리적 이점을 살려 '먹거리 안전 창고' 역할

을 할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생태관광, 해상풍력, 어촌개발 등을 고창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기로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이 맞닥뜨린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이 행복한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든든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